



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여객선 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 여수지사운영관리센터가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하는 4중 안전관리 체제로 이뤄졌다. 민·관 소통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여객선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무등산국립공원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4일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탐방객이 집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무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거리두기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인사

동구청 ◇4급 승진 ▲최월남 지치행정국장 ▲오정 문화도시재생추진담당 ◇4급 진보 ▲송기택 복지경제국장 ◇5급 승진 ▲이근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미숙 의회사무과 ▲최미숙 산수1부장 ▲배주석 청년체육과장(직무대리) ▲강영숙 계림2동장(직무대리) ▲김영희 서남동장(직무대리) ▲유한중 지원1동장(직무대리) ▲임경숙(지원2동) ▲김혜란(건강정책과) ◇5급 진보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민천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 미래교육과장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최상재 세무1과장 ▲기길호 세무2과장 ▲장동인 건강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김해숙 의회사무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조복영 보건사업과장

소장 정영고 ▲의회사무국장 채금목 ◇4급 직무대리 ▲보건소장 양선길 ◇5급 승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관광과장 한길성 ▲건설과장 백종인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송광면장 윤영환 ▲매곡동장 조주은 ▲저전동장 양영심 ▲도사동장 박형숙 ◇5급 진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홍보실장 서규원 ▲총무과장 장홍상 ▲자치혁신과장 백은석 ▲회계과장 채연석 ▲정보통신과장 김영호 ▲도시재생과장 정성택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허기원원과장 조용병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건축과장 장순모 ▲의회 전문위원 이찬성 ▲의회 전문위원 정형화 ▲동북자원과장 탁중수 ▲정서지원과장 김대성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주암면장 김엄준 ▲낙안면장 유형익 ▲해룡면장 이강복 ▲월동면장 장영택 ▲향동장 김경만 ▲풍덕동장 정순금 ▲남제동장 김경숙 ▲왕조1동장 정운배 ▲왕조2동장 서숙자

광산구

◇4급 승진 ▲복지교육국장 정해중 ▲안전도시국장 심재경 ◇4급 진보 ▲경제문화국장 이계두 ▲의회사무국장 김현준 ◇5급 승진 ▲송정2동장 박정숙 ▲운남동장 최운정 ▲인곡동장 나교식 ▲분량동장 박안수 ◇5급 승진 의결 ▲관광육성과장 직무대리 이정은 ▲월곡1동장 직무대리 최정광 ▲월곡2동장 직무대리 유홍규 ▲하남동장 직무대리 이계일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장금수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 성영진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경모 ◇5급 진보 ▲홍보실장 정찬영 ▲노인장애인과장 김윤희 ▲교육지원과장 박관우 ▲공원녹지과장 김경미 ▲환경생태과장 공경희 ▲회계과장 오운숙 ▲세무2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발용

영광군

◇5급 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용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철희 ▲법정면장 임형표 ▲군서면장 정홍성 ◇5급 진보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재무과장 김희중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농업개발과장 강두원 ▲의회사무과장 이호신 ▲낙월면장 인경호 ▲염산면장 이정석 ▲대마면장 한상훈 ▲군남면장 이현정

순천시

◇4급 승진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 ▲맑은물관리센터

보성군

◇4급 승진 ▲산업안전국장 박형우 ◇5급 승진 ▲미력면장 정삼룡 ▲문덕면장 이광재 ▲조성면장 손말이 ◇5급 진보 ▲기획예산담당관 문경률 ▲재무과장 김봉현 ▲농축산과장 허호형 ▲시설관리사업소장 조승권 ▲보성읍장 조영우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나중선

“광역 시·도별 말 운동장 조성 필요”

전국말생산자협회 이춘항 신임 회장

회원간 친목·화합 강조...사업 조기추진 피력 호남·충청권 등 효율적 예산 투입 거듭 강조

“말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각 광역 시·도별 말 운동장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근 전국말생산자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춘항 보성하리승마클럽 대표(57).

“말생산자협회의 숙원인 광역 시·도별 말 운동장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전국민 승마 열기도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전남 각 시·군에 모두 814마리의 말이 있다”면서 “이 정도 규모를 감안해 전남도가 5개년 계획으로 제주와 같은 말 특구 지역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약사장이 많아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자체들의 관심과 성원 역시 당부했다. 이 회장은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말 운동장은 서울과 부산, 제주, 전북 장수 단 네 곳 뿐이라며 호남, 충청, 영남권 등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 말 운동장을 조속히 조성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성군 보성을 출신으로 보성을 패스리 자신의 농장에서 약 100여 마리의 말을 직접 키우고 길들이며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장은 올해 초 열린 전국말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부산 출신 상대 후보와의 경선 끝에 두 표차로 당선돼 중책을 맡았다. 전국말생산자협회는 회원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장은 말 산업의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그는 “말이 태어나면 길을 들여 사람이 안정적으로 타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말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들이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성진 기자

이진국 (주)에덴뷰 대표, ‘발명의 날’ 산자부장관 표창

(주)에덴뷰 이진국 대표(사진가)가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5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55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발명 유공자 7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2010년 (주)에덴뷰를 설립한 이진국 대표는

농작업용 편의의자 ‘쫄그리’ 발명으로 국내 외에서 총 40여 건에 이르는 특허 출원과 등록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등 활발한 해외 수출로 한류 열풍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농민들의 무릎 건강과 농부증을 덜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개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제품들은 다리 사이로 끼우는 방식이어서 착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 갈 때마다 탈의해야 하는 등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 대표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착탈이 편리하도록 허리벨트 형식으로 편리성을 강조하고 작업 중 쫄그리고 이동할 때 의자가 엉덩이와의 밀착도를 높여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석훈 기자



광산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구 공무원들은 지난 4일 송정동의 한 종교시설을 방역소독하는 등 주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대응 TF’ 확대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 광산구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후속 조치로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3개소를 현장 방문해 집합 제한과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집합·모임·행사 관련 조치를 마쳤다. 공공시설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광산구는, 문화·체육시설 73개소를 임시 휴관 조치하고, 영유아복지시설

376개소와 자활사업단 29개소 운영도 중지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등 169개 어르신 시설과 경로당 375개소도 휴관과 운영 중지하도록 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업체 105개소는 1~3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완료하고, 3일부터는 노래연습장 286개소와 PC방 251개소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점검에 들어갔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첫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두 번째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육군 31사단 다중이용시설 220개 방역지원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 4일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지원에 나섰다. 31사단은 코로나19의 전파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 220여 개소에 방역복을 착용한 장병 200여명을 투입, 출입문 손잡이와 책·걸상 등 시설 내부를 구성요소 꼼꼼히 소독했다. 방역지원에 나선 허선무대위(28)는 “올해 초에도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결집된 역량으로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

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31사단 장병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분도 마스크 착용과 외출·모임 자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31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광주·전남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00일 동안 1만여명의 장병을 투입,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검역과 방역, 사방의 현행운동, 취약 계층에 대한 도사락 전달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김중찬 기자

Advertisement for '전매게시판' (National Real Estate Boar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www.jndn@chol.com

Advertisement for '결혼' (Wedding) services, listing various wedding packag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알림' (Notice) regard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Free consultation on weekdays after 2pm and 5pm), listing various legal and support services.